



신호제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주 제:	“가장 큰 계명”	“연중 제 30 주일”	2008년 10월 26일
복음 묵상:	[마태 22, 34-40]	[탈출 22,20-26]	[1 데살 1, 5-10]

율법 교사는 시비를 걸려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한 술 더 떠서 “가장 크고”에 덧붙여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은 당시 율법의 613 가지 계명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이 둘째로 꼽으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는 율법 교사의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빗대어, 시비 거리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당시의 수많은 계명은 모두 제쳐 놓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훨씬 중요하고 큰 계명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예수님의 표현은 사랑이 모든 계명과 가르침의 근본임을 극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은 사랑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자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그리고 “최상의” 계명으로 꼽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들 자신의 삶에서도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최상의” 실천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반성해 봅니다.(평화 방송 김 영춘 베드로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Baby Shower!!!**

서 병문 바오로와 박 상미 베로니카 첫째아기를 위한 baby shower 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새로태어날 아기를 위해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11월 1일 (토) 오후 12시 30분.
- 어디서: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 맥: 650-380-2236
[12650 Corte Madera Ln. Los Altos Hills, CA 94022](http://12650CorteMaderaLn.LosAltosHills,CA94022)

**** 마스타 코라스 정기 연주회**

김인숙 세실리아 지휘자님이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마스타 코라스 정기 연주회를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관심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11월 1일(토) 저녁 7시 30분.
- 어디서: [201 montague Expwy. Milpitas, CA 95053](http://201montagueExpwy.Milpitas,CA95053)

***** San Francisco Symphony Youth Orchestra 연주회**

Stephen Kim(김효식 펠리보 네리 형제님 막내아들)군이 San Francisco Davies Symphony Hall 에서 바오울린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연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언제: 11월 9일(일) 2:00 PM
- 어디서: [Davies Symphony Hall. San Francisco, CA 94102](http://DaviesSymphonyHall.SanFrancisco,CA94102)
- 입장권은 Box Office: 415-864-6000 로 전화하여 November 9, Concert 를 구매하시면 됨 (General Admission Ticke) 집으로 Ticket 이 우송되면 Extra 비용도 들고 하니, 당일 연주홀 입구 Box Office 에서 구매하신분의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Will Call" 이라 합니다)
- Ticket 이 연주회 1 주 전에는 보통 매진되므로, 가능한 10월 30일 전에 구매해야할 것 같고, 그래서 당일 구입은 아닐것 같습니다.

- **조정자 율리아나 자매님** 10/5-11/9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좋은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연 하연 아네스 자매님**, 일요일 아침시간 강의 관계로 2개월 가량 성가대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주님의 지혜주시어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모친의 간병차 10월 말까지 한달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루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기쁨 속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지 사항:

매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례에 도구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좋은 노래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더 많은 연습을 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각자의 사정으로 결코 용이하지 않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남자 단원들이 적극 희생봉사하여, 집에서도 연습을 하여 더욱 숙달된 모습으로 연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꼭 숙지하시어, 잊지 말고 매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식지**에 그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2. **화답송**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으니 꼭 해 보시고 오십시오. (금주는 늦었습니다.)
3. **성탄 특송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0824>
4. 위의 두가지 사항이 지켜지면 연습시간을 연장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5.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밤샘작업을 하시며 수고하여 주신 **최일해 다니엘 형제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중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여 주십시오.

*** 복음 [마태 22, 34-40]**



예수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 중 한 율법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1분 명상

♡ " 행복을 여는 사람들 " ♡

평소에 관심없던 사람도
어느날
부드러운 눈길 따뜻한 미소로
살며시 건네주는 사탕 몇알에
가슴 따뜻해 움을 느낍니다,

한번 만난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하면
가슴속에 따뜻한 느낌 전해옵니다,
자주 만난적 없는 사람이
밝은 미소로 격려를 전해줄 때
가슴속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사랑을 베풀까?”